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	보 도 자 료	KPIPA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자	2025. 4. 30.(수)	배포	대외협력팀 이민주 대리 063-219-2746/ minju@kpipa.or.kr
첨부파일	-	담당	미래산업팀 김진영 주임 063-219-2753/ kimjy@kpipa.or.kr

“모두를 위한 책, 모두가 누리는 독서”

-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, 디지털포용법 앞두고 ‘보편적 독서문화’ 선도

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원장 직무대행 이재선, 이하 ‘출판진흥원’)이 다가오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「디지털포용법」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디지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‘보편적 독서환경’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□ 출판진흥원은 그간 EPUB 3.0 기반 전자책 제작 지원과 전자책 뷰어 기술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, 전자출판 분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에 힘써 왔다.

□ 특히 스크린리더 이용자도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, 문자 음성 변환(TTS), 대체 텍스트, 탐색(navigation) 기능 등을 적용한 전자책을 2019년부터 제작 및 지원하며, 장애인 접근성 콘텐츠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.

* 스크린리더: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조기기
* TTS(Text-to-Speech):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기술

□ 또한 전자책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에 ‘민간 전자책 뷰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연구’를 수행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교보문고, 예스24, 알라딘 등 주요 유통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‘전자책 뷰어 공통 접근성 엔진’을 개발 중이다.

□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“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앞두고,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출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”라며, “출판진흥원은 민간과의 연대와 기술 지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‘모두를 위한 책’을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출판진흥원은 올해도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, 앱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 김진영 주임
(☎ 063-219-2753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